

감각적인 휴게실, 산수화 같은 공원… 모든 게 걸작이네



아파트의 미학(美學)

인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최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주안역 2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연학·인주초와 학익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미추홀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205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36㎡ ▲44㎡ ▲59㎡ ▲73㎡ ▲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자이(xi)’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뽑내고 있는 단지는 타입별로 4베이(BAY), 판상형, 3면 개방 구조, 타워형 구조 등을 적용해 면적을 극대화했다.

시공사인 GS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입주민을 위해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거실과 주방 천장에 설치된 신개념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템 클라인(Sys Clein)을 적용해 24시간 별도의 환기 없이 청정

최고 29층 13개동 2054가구, 대단지 아파트
연학·인주초, 학익여고 단지 바로 옆 ‘도보권’
스마트패스 카드·휴대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주차장 없앤 지상엔 정원 4곳, 휴게공간 배치
단지내 어린이집과 상상자극 테마놀이터 제공

한 공기를 공급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적용해 스마트패스 카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동현관 자동문 열림과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이 가능해져 거주하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서 “방범용 도어 카메라 및 블랙박스 기능의 월패드를 적용해 현관 근처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일정 시간 동안 영상을 촬영·저장하는 등 입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을 없앤 지상층에는 ‘블룸힐락 가든’, ‘크리스탈 엘리시안’, ‘루비 엘리시안’, ‘백학나래 숲’ 등 총 4가지의 정원이 조성됐다. 정원 주변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단지 중앙 조성된 ‘블룸힐락 가든’에는 ‘석가산’이 설치돼 바람, 폭포의 물줄기와 소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크리스탈 파빌리언을 중심으로 울창한 팡나무 숲이 조성된 ‘크리스탈 엘리시안’에는 조형물과 연못, 티하우스 등이 설치돼 입주민들에게 휴식과 산책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부드러운 그라스 초원과 우아한 학의 나래를 닮은 수경관을 즐길 수 있는 ‘백학나래 숲’의 경우 고급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단지에는 입주민의 편의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 GX룸,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됐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어린이집 옆에는 고래를 모티브로 한 놀이터 ‘고래와 함께 바닷속 탐험’이 설치됐다. 흰찬 날갯짓을 마치고 포근한 동지로 내려 앉은 백학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백학의 동지’와 물놀이 테마 놀이터인 ‘바다 위의 선착장’ 등도 만들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① 단지 내 조성된 휴식공간 모습.
- ② ‘크리스탈 엘리시안’에 조성된 티하우스 모습.
- ③ 단지 내 조성된 ‘블룸힐락 가든’.
- ④ 단지 내 조성된 ‘루비 엘리시안’ 모습.
- ⑤ 고래를 모티브로 한 테마 놀이터 ‘고래와 함께 바닷속 탐험’ 모습.
- ⑥ 단지 내 조성된 ‘백학나래 숲’.